

“목숨 건 등갓길 개선” 본사 캠페인...52년 ‘안전 지킴이’

광주 최초 육교 ‘중앙육교’ 설치부터 철거까지

초등학교 여학생 뺑소니 사고 사망 계기 1969년 기획기사로 보도 시민 성금 답지 그해 9월 준공...광주·전남 학교 앞 육교 건립 확대 7일 철거 소식에 주민들 ‘섭섭’...“육교 역사 담은 표지석 세웠으면”

“사랑의 육교(1969년 당시 중앙육교의 이름), 잊지 않을 겁니다.”

50여년 전인 1969년 7월 6일, 광주일보는 ‘학교 앞에 육교를’이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전년도 광주·전남(제주 포함) 1-5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77명에 달한다는 당시 전남경찰(전남도경) 통계를 인용하며 육교 건립의 시급성을 주장한 캠페인 기사였다. 1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658명에 달했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39명(부상자 85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1969년 5개월(1~5월)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106명에 달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5명으로 감소했지만 부상자는 오히려 71.76%(146명) 증가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3개월 전인 1969년 4월, 중앙초교 앞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여학생이 숨진 것을 계기로 시작한 기획물이었다.

광주일보는 사망사고 이후 6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곧바로 보행자 육교를 조성,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의 안전을 지키자는 ‘학교 앞 육교를 세우자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당시 광주에는 육교가 없었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969년 9월 18일 중앙육교가 세워졌다.

광주에 제일 먼저 세워진 1호 육교로, 시민들이 모금해 건립 비용을 냈다.

당시 81만 3785원이 모였다. 광주일보와 기자 등의 성금(5만원)을 시작으로 광주대성국민학교 화랑회(1143원), 광주중앙국민학교 유근경씨(727원), 향토사단(2만원), 호남전기㈜(50만원), 광주양동국민학교(1만원), 제일자금회(5000원), 전남도교육감(1만원), 전남도 교우일동(2만3000원), 광주 중앙국민학교(1115원), 광주국세청·광주세무서·서광주세무서·남광주세무서 직원일동(10만원), 전남여자중·고(1만6625원), 광주사법서사회·동광주지부(1만원), 전남도교육위원(2만원), 전남도 화물차운송사업조합(1만원), 광주수창국민학교(1275원), 한국자동차보험광주지부 손건주씨(2만원) 등의 이름으로 성금이 모였다. 이 성금을 기반으로 1969년 8월 2일, 광주중앙초교에서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기공식이 열렸다.

성금이 사·도 예산을 더해 중앙초와 양동초 앞 2곳에 707만원의 공사비로 육교 건립이 시작됐다. 공사 기간은 9월 초 새학기 시작 전인 8월 31일까지로 했지만 최초의 육교 공사기간이 다소 늦춰지면서 1969년 9월 18일에야 준공식이 열렸고 하루 뒤인 19일 양동초 앞 육교도 준공됐다.

중앙육교를 시작으로 학교 앞 육교는 크게 늘었다. 1970년 4월 수창초, 같은 해 5월 계림초 앞 육교 기공식이 잇따랐고 이후 전남지역으로 확대돼 목포 산정초 앞에도 육교가 들어섰다.

그로부터 52년 뒤인 올해 8월 7일, 육교는 사라진다. 광주시 동구 궁동·장동을 연결해 초등학교를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궁동에 광주시 최초로 세워진 보행자육교가 5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는 7일 철거에 들어간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오가던 어린이들의 안전을 챙겨주던 역할을 끝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철거는 7일 밤 11시 30분부터 8일 새벽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시간, 동구 한미소방 파거리에서 장동로타리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당시 중앙육교 건립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철거 소식을 접한 뒤 섭섭하다는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육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백상규는 “광주 최초의 육교로, 50여년을 같은 자리에 있던 육교가 없어진다니 서운하다”면서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 보도가 생기겠지만 육교 역사를 담은 표지석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69년 당시 중앙초 6학년이었던 김동수(63·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육교라는 걸 본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학교 앞에 생겨 이렇게 불편한 걸 왜 만들어 이용하게 하느냐며 친구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그래도 육교 덕분에 52년 간 중앙초 교 후배들과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지 않느냐”며 “사라진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에 남아있는 보행자 육교는 중앙육교를 포함, 69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69년 7월 6일 광주일보에 보도된 ‘학교 앞에 육교를’이라는 기획기사(위)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광주지역 각계각층의 성금이 모여, 같은 해 9월 18일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광주 최초로 육교가 세워졌다. <광주일보 자료>

‘학동 참사’ 유족 “꼬리자르기식 수사 안돼”

철거 수사 촉구 진정서 내기로

“학동 참사는 희생자 가족, 함께 하는 사람들, 일터에 생채기를 내고 슬픔을 떠안긴 참사입니다. 여기사 수사와 처벌이 끝난다면 유가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을 2021년 6월 9일(사고 발생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학동 4구역 건물붕괴사고 유족대표단은 5일 광주경찰청을 찾아 건물 붕괴사고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는 유가족 7명의 진정 내용 등이 담겼다.

유가족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고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게 대한 혐의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꼬리자르기’ 식 수사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디고 미흡하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유가족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보도 이후...마침내 버스기사 쉼터 생긴다

10일 서광주역 종점에 조성 운영 광주시 모든 회차지로 확대키로 TV·에어컨 등 부대시설도 지원

준공예정대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운행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21일 6면)과 관련, 광주시가 버스기사들의 휴게 쉼터 조성에 나섰다.

4일 광주시와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오는 10일 시내버스 회차지 80개 중 한곳인 서광주역 종점에 48㎡(14.53평) 규모의 휴게시설을 조성, 운영

한다.

서광주역 버스종점은 7개 노선 버스가 지나가니면서 하루에만 70여명의 버스기사들이 잠시 쉬어가는 회차지지만 휴게시설이 전무하다.

버스기사들은 지금까지는 휴게공간이 없어 1시간 넘게 운행해온 뒤 서광주역 역사에 들러 잠시 쉬어왔다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을 반복했다. 역사가 문을 열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앉아 있을 공간이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 버스기사들은 이 때문에 서광주역 종점에 7년 넘게 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해왔다.

광주시는 7년 만에 버스기사들의 요구를 수용, 서광주역 종점에 48㎡ 크기의 휴게실을 마련했다. TV와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등 부

대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버스노조는 휴게실 명칭을 ‘하늘쉼터’로 정했다.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하루 9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이 잠시 하늘을 볼 수 있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서광주역 회차지를 시작으로 태평동 신기마을 시내버스 회차지 등에 쉼터 조성을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시내버스 모든 회차지에 휴게시설을 조성,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 196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사장, 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8.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사 장: 1명
- 비상임이사: 3명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사 장 (학력 및 전공분야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경력사유, 외·임용 전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1) 도시공사 주요 업무관련 경력을 갖춘 분
- 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급 이상 경력을 갖춘 분
- 3) 공기업 경영 등 공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춘 분
- 4)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분

나. 비상임이사 (학력 및 전공분야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경력사유, 외·임용 전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회계사, 전직4급 이상 공무원, 경영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공사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 도시공사 주요 업무관련 경력을 갖춘 분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 분

4. 주요직무 및 사업

● 사장의 주요직무

- 가. 법률·경관상의 담당 직무(정관 제30조 임원의 직무)
-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직무
- 다. 공사의 사업수행 관련 직무
-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직무
- 마. 기타 관련 직무

● 비상임이사의 주요직무

- 가.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 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 심의의결

● 공사 주요사업

- 가. 도시개발 및 분양
- 나.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
- 다.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 마. 주차장 설치 운영 및 공영차고지 수탁관리
- 바. 매장 및 화장 등 장사사업
- 사.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등

5. 직무수행 요건

- 사 장: 광주도시공사 사장 직무수행요건 불일참조
- 비상임이사: 광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 불일참조

6. 임원의 임기계약 및 보수

- 사 장: 임용일로부터 3년 성과계약
- 관련법에 의거 임기 내 해임가능 및 임기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연봉은 성과연봉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가장 조정 가능

● 비상임이사: 임용일로부터 3년

-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소정의 참석수당 및 월정액 활동비 지급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서류 전형 기준

[사 장]

- 기업 경영능력, 전략적사고 및 비전 제시 능력,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공사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공공성·기업성 조화 능력, 기타 자기검증 기술서 인사검증 등

[비상임이사]

- 공사 사업관련 전문성, 전략적 사고 및 비전 제시 능력, 공사 업무 관련 이력 및 경력, 공공성·기업성 조화 능력

-합격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사장 후보자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면접심사: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20분 이내 발표

- 직무수행 계획 발표시 프레젠테이션 발표 또는 서면 발표 가능
- 전문성, 리더십, 경영역시 및 문제해결 능력, 조직 및 노사관리 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윤리관 인품 등 심층면접 심사
- ※ 비상임이사는 2차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1차 서류심사로 갈음

다. 임원후보자 복수 선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최종 면접심사에 합격한 사장 임용 후보자와, 서류심사에 합격한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광주광역시에게 복수 추천

라. 자치단체장의 심사 및 의사결정위원회 심의

- 시장은 복수의 사장 후보 중 1명을 선정하여 시 의회 청문회의 공개검증을 통해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 경과보고서 의견을 받아 최종 임용

8.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가. 지원서 접수: 2021. 8. 13. ~ 8. 20.(8일간) 09:00 ~ 18:00

(단, 주말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접수제외)

●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소정양식)
- 2) 자기소개서 2부(소정양식)
- 3) 직무수행계획서 2부(소정양식)
- 4) 사장 임용 지원서 자기검증 기술서(소정양식) 1부
- 사장 후보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별도안내)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6) 기본증명서(상세)
- 7) 경력증명서(근무처별)
- 8) 보유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9) 국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5년분)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 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팀(15층)

- 주소: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담당자 앞

나. 서류심사: 2021. 8. 26.(목) 예정 - 심사결과 공사 홈페이지 공고

다. 면접심사: 2021. 8. 30.(일) 예정 - 심사결과 공사 홈페이지 공고

라. 임용후보자 복수 추천: 2021. 8. 31(화) 예정

마. 최종임용: 사장 2021. 10월 초(예정), 비상임이사 9월 말(예정)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제출서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2명)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1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재공모 없이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접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또는 격리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면접 당일 온라인 화상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상면접을 진행할 PC장치 설치, 화상면접 프로그램 접속 등의 준비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자는 반드시 면접일 하루 전까지 총무팀(600-66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상면접 진행 중 면접 답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부정행위 간주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062-600-6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 직무수행 요건(검고용) 1부.

2. 지원서(제출용 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제출용 소정양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제출용 소정양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제출용 소정양식) 1부.

6. 임용 전 7대 원천 배제 기준(소정양식) 1부.

7. 사장 임용 지원서 자기검증 기술서(제출용 소정양식) 1부.

※ 붙임 자료 및 식사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